

최성국 원맨쇼 “삼성 끊어”

광주 상무, 수원에 2-0 완승 선두 바짝 추격
전남 이천수 결승골, 대구 FC에 2-1 역전승



상무 불사조의 패기가 2008 시즌의 제왕 수원 삼성을 꺾었다. 광주 상무가 10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9 K-리그 수원 삼성과의 9라운드 경기에서 시즌 4호골을 터뜨린 최성국의 활약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두며 6경기 연속 무패 행진(5승1무)을 이어갔다.

상무 송환복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상무가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카카로 나선 수원 이상호의 움직임은 읽은 '불사조 수호신' 골키퍼 김용대가 몸을 날리며 골을 막아냈다. 심정기회를 낚긴 상무의 조직력이 살아난 전반 막바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최성국의 득점포가 가동됐다. 전반 42분 김영중이 왼쪽에서 치고 올라오며 페스해준 공을 받은 '리틀 마라도나' 최성국이 세 명의 수비수 사이로 슈팅을 날렸다. 최성국의 발을 떠난 공은 크로스를 맞고 골라인 안 쪽에 떨어지면서 시즌 4호골이 완성됐다.

후반 40분 배기종이 골 지역 우측에서 페린 날카로운 슈팅이 왼쪽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수원은 일반적인 공세를 펼치면서도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경기 종료 직전 승리를 수원의 추격 의지를 꺾는 상무의 패기 골이 나왔다. 후반 45분 최원권이 최성국이 얻어 낸 페널티킥을 정확하게 골로 연결 시키면서 2-0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전남 드래곤즈도 10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돌아온 풍운아 이천수의 결승골로 2-1의 역전승을 거뒀다. 전반 7분 동안 양팀이 세 골을 주고 받으며 가짜승을 보였다. 전반 3분 대구 백영철에게 선제골을 내준 전남은 2분 뒤 김웅진의 골로 응수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다시 2분 뒤인 전반 7분 이천수가 페널티킥 왼쪽에서 웨슬리의 패스를 받아 대구의 골망을 흔들며 2-1로 경기를 뒤집었다. 후반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종료되면서 전남은 3연승 행진속에 3승4무1패(승점 13)로 5위 까지 뛰어올랐다.



기뻐하는 상무, 허탈한 이천수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프로축구 2009 K리그 광주 상무와 수원 삼성의 경기 후반전 광주 상무 최성국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최원권이 골로 연결시킨 뒤 광주 상무 선수들이 환호하는 동안 수원 골키퍼 이천수(왼쪽)는 허탈하게 앉아 있다.

세계배드민턴聯 강영중 회장 연임

강영중 회장이 앞으로 4년 더 국제배드민턴계를 이끌게 됐다. 강영중 회장은 10일 중국 광저우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총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총 232표 중 162표를 획득, 70표에 그친 말레이시아의 앤드루 캄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몰리치고 배드민턴 수장으로 당선됐다. 연임에 성공한 강회장은 이로써 2013년 5월까지 BWF를 이끌며 지구촌 배드민턴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도모하게 됐다.



남 배구대표 감독 김호철씨

남자배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의 김호철 감독이 새로 선임됐다. 대한배구협회는 9-10일 이틀간 종별배구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충북 옥천에서 강화위원회와 상임집행위를 열어 기존 신치용 삼성화재 감독 대신 김호철 감독에게 남자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여자 대표팀 감독으로 GS칼텍스 이성희 감독을, 대학배구 대표팀 감독으로는 선교관대 박종찬 감독을 각각 선임했다. 김호철, 이성희 감독은 월드컵(여자는 그랑프리) 대회, 세계대회에선전, 아시아 선수권 대회 등 올해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각각 남녀 대표팀을 이끌게 된다.

테니스 이형택 佛오픈 불참

한국 테니스의 간판인 이형택(33·삼성증권)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프랑스오픈에 불참하게 됐다. 윤용일 삼성증권 코치는 10일 "무릎 부상이 아직 다 나지 않았고 오른쪽 손목에 통증까지 생겨 프랑스오픈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랭킹 145위 이형택은 11일부터 부산 금정테니스코트에서 열리는 남자프로테니스(ATP) 부산오픈선수권대회(총상금 7만5천달러)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포기했다.

광주체고 3위, 전남체고 7위

개인별 성적에서는 박은경(3년)이 체조 6관왕을 기록하며 대회 최우수선수 상에 올랐다. 배가람(2년)·김희훈(3년·이상 남자 체조)·권삼순(3년)·추진리(3년·이상 여자 역도)·김준선(3년)·최진호(2년·이상 남자 역도)가 각각 3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육상 김민정(2년)이 1000mH와 1600m 계주에서 우승, 2관왕에 올랐으며 황준호(3년·수영)·양학선(2년·체조)도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전남 분리 이후 첫 종합우승을 기대했던 광주체고는 수영 등 기초종목과 다메달 종목에서 경기체고와 서울체고에 뒤져 목표달성에 실패했지만 앞으로 이들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회는 육상·수영·체조·레슬링·복싱 등 12개 종목에 걸쳐 2천21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광주 월계중 김한웅 3관왕 스트라이크

협회장배 전국중별빙림선수권

빙림 꿈나무 김한웅(광주월계중)이 제 28회 대한빙림협회장배 전국남녀중별빙림선수권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김한웅은 지난 8일 전북 익산 덕성빙림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경기 개인종합에서 3천564점(평균 198.0)을 기록, 김보근(동산중·3천402점·평균 189.0)·이오섭(범계중·3천385점·평균 188.0)을 제치

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김한웅은 하영훈·박준민·정동익(이상 월계중)과 함께 출전한 4인조전에서 4천164점으로 순천금당중(4천106점)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로써 김한웅은 지난 6일 개인전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총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맹활약을 보였다.

유타하제즈팀 大賞 영예

광주생체協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유타하제즈'팀이 2009 클럽대학 청소년 생활체육 댄스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김창준) 주최로 지난 9일 광주중합버스터미널 U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유타하제즈'(사진)는 퓨전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댄스로 대상을 영예를 안았다. 단체우수상은 KJN과원댄스팀, 화합상은 블랙버데이팀 그리고 예술상은 비사이즈주니어팀에게 각각 돌아갔다.

또한 개인 최우수선수상에는 박인태(천성팀)군, 우수선수상에는 김태환(합은대비이)·나린(나수경댄스클럽)이 각각 차지했다. 팝핀과 힙합댄스 등 다양한 댄스의 경연이 펼쳐졌던 이번 대회에는 총 18개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2009 클럽대학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는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활동 및 클럽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열리고 있다. 이번 단체대회를 시작으로 6월21일에는 길거리 농구대회(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농구장), 9월26~27일엔 축구대회(용산체육공원)가 개최될 예정이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법률경매(주) 0621 225-1688 H.010-3565-2888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062-227-9600 FAX:062-227-9500

2009년 이탈리아 본고장 유럽형 스쿠터 국내 상륙!! Lambretta W 1,980,000

Real estate listings table with columns for location, price, area, and agent details.